

동향분석실

문 병 기 수석연구원

김 건 우 연구원

02-6000-5185, bkmun@kita.net

02-6000-5106, astronaut@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독일 수출은 유로화 사용,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시장개방 및 외화유치, 개방적인 이민정책, 노동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해외생산 확대, 신흥국·중간재 중심 수출구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규모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따라서 일본과 수출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는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부품·소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고급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TPP 등 메가 FTA 확대, 외국인 노동력 수용정책 등을 통해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01. 일본과 독일의 수출 현황 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수출은 독일과 달리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정체

-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규모는 독일이 3.11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쳐 1994년 일본 수출은 독일의 93%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47%까지 하락

* 수출규모(억 달러, 1994→2015) : (日) 3,970→6,251 (1.57배), (獨) 4,269→13,289 (3.11배)

* 일본 수출증가율(% , 달러기준) : 6.9('11) → -3.0('12) → -10.5('13) → -4.4('14) → -9.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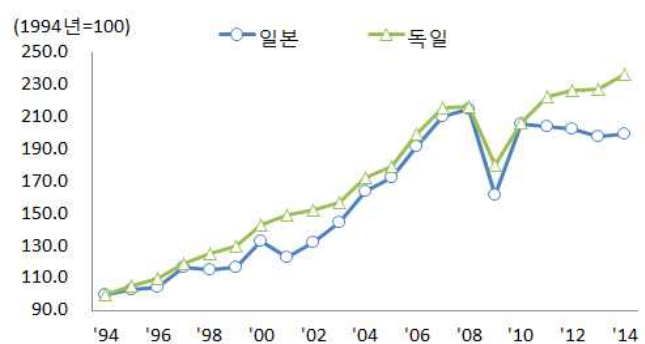
- 수출물량은 독일이 2009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본은 2010년 이후 감소 또는 정체

* 독일 수출물량 증가율(% , 달러기준) : 14.3('10) → 7.9('11) → 1.7('12) → 0.5('13) → 4.1('14)

일본, 독일의 수출액 추이



일본, 독일의 수출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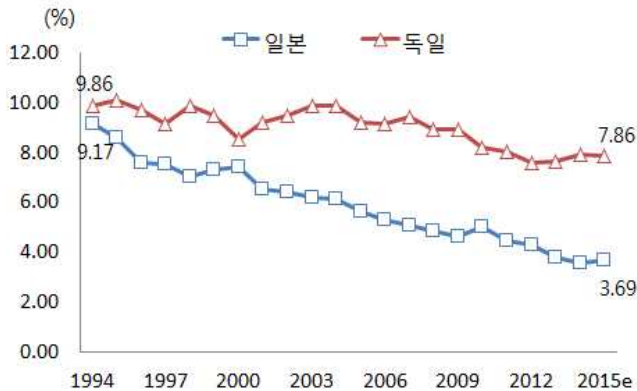
자료 : WTO

● 세계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일본은 하락 추세인 반면, 독일은 최근 상승세

- *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4.3(2012) → 3.8(2013) → 3.6(2014) → 3.7(2015^e)
- * 독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7.6(2012) → 7.7(2013) → 7.9(2014) → 7.9(2015^e)

● 무역수지도 독일은 흑자가 지속되는데 반해, 일본은 2011년부터 적자가 지속

일본, 독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 WTO

일본, 독일의 무역수지



자료 : WTO

02. 일본과 독일 간 수출성과 차이 발생 요인

① 日 누적된 엔고에 따른 피해 vs 獨 유로화 사용의 혜택

● (日) 2006~2007년 이후 6년 연속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초강세 기록

- 특히 2011~2012년에는 1달러당 70엔대로 엔화 가치는 전후 최고치 경신
- *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라 엔화 약세가 지속. 최근 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엔고가 나타남
- WSJ(2012. 1.24)은 ‘일본 수출시대의 종말’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수출부진의 이유로 2011년 3월 대지진과 함께 엔화강세를 원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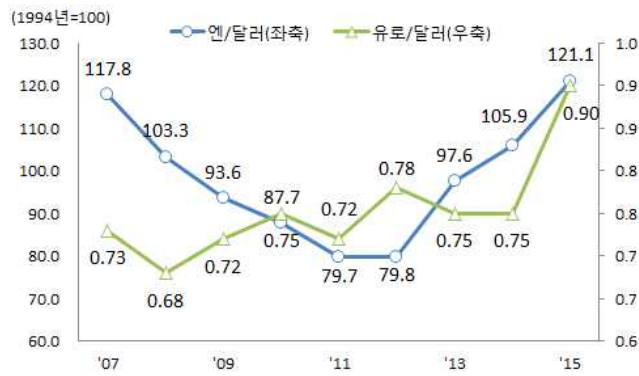
● (獨) 2007~2014년 동안 유로/달러 환율은 0.75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

- 2015년에는 ECB의 양적완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달러 대비 약세

● 유럽통합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독일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고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역내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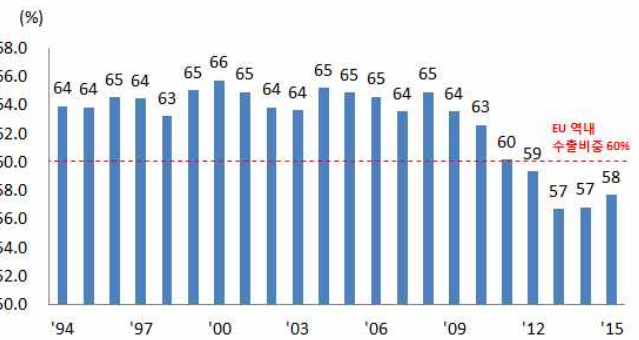
- *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EU)조약’이 발효됨. 1999년 1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 11개국은 유럽 경제통화동맹을 정식 출범시키고 단일통화인 유로화(Euro)를 도입
- 지난 20년간 독일의 EU 역내 수출 비중이 60% 대를 유지해 오면서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에 기여해 옴(달러 기준 1994년 대비 2015년 무역수지는 6.13배)

달러 대비 엔화 및 유로화 평균 환율



자료 : 한국은행

독일의 EU 역내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Federal Statistics Office Germany, Deutsche Bundesbank

② 日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 vs 獨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진행

● (日)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 엔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생산공장을 이전

- 일본의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은 2000년 11.8%에서 2013년 22.9%로 확대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의 원천인 부품 공급망 (Supply Chain)의 취약성 노출, 생산기지 해외 이전 추세 강화

일본의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11.8	16.7	17.0	18.1	18.0	20.3	22.9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獨) 독일 제조 기업들 중 노동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 (Offshoring)하는 기업은 줄어든 반면 본국 회귀는 꾸준히 진행

- 독일 제조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06년 15%에서 2009년 9%, 2012년 8%로 떨어진 반면, 2006년 이후 매년 조사기업의 2~3%는 본국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남(Fraunhofer ISI¹⁾)
- 기업들은 독일 내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질적 수준, 잘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회귀(Reshoring)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로 회귀하는 기업들은 높은 유연성(59%), 질적 수준(53%), 물류비절감(25%), 협조 비용 절감(21%) 및 인프라(13%) 등을 돌아오는 원인으로 꼽음

1) Fraunhofer IS, 'Globale Produktion von einer starken Heimatbasis aus' 2013. 보고서 참고

③ 日 소극적인 시장 개방 vs 獨 적극적인 역내통합, 시장 개방 및 외자유치

● (日) 농업 개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이 미흡

* 단, 최근 들어 TPP 협상 타결, EU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다수의 FTA를 추진

● (獨) 반면, EU는 역내통합에 기반한 교역 및 다자주의에 집중해왔고 2006년 이후 ‘글로벌 유럽’ 전략을 통해 역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

* 유럽통합으로 상품의 이동이 자유화되고 각종 제도 및 표준 등이 정비됨에 따라 교역비용이 감소

* FTA 발효현황(2015.1월말 기준) : (日) 14건 16개국, (EU) 34건 56개국

* FTA 발효국(해당국가 포함) GDP의 전 세계 비중(% , 2014) : (日)15.5, (EU)33.2

● 동시에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일본 대비 큰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 (% , 2006→2015) : (日) 40.7→33.1, (獨) 38.3→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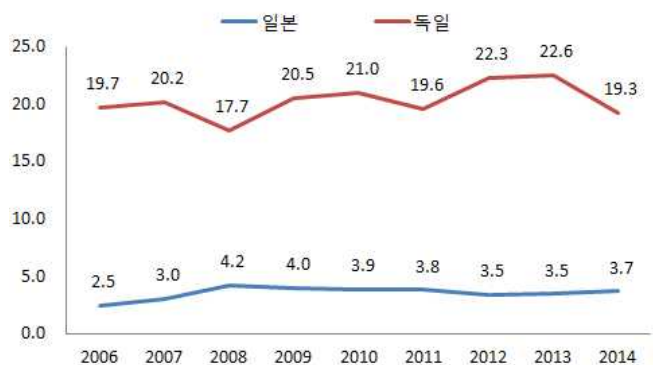
* GDP 대비 FDI 잔액 비중 비교 (% , 2014) : (日) 3.7, (獨) 19.3

명목 법인세율 변화



자료 : KPMG

GDP 대비 FDI 잔액 비중



자료 : UNCTAD

④ 日 신흥국,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vs 獨 선진국, 소비재 중심의 수출 구조

● (日) 對신흥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간재가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 對신흥국 수출 비중 (% , 2014) : (日) 50.8 (獨)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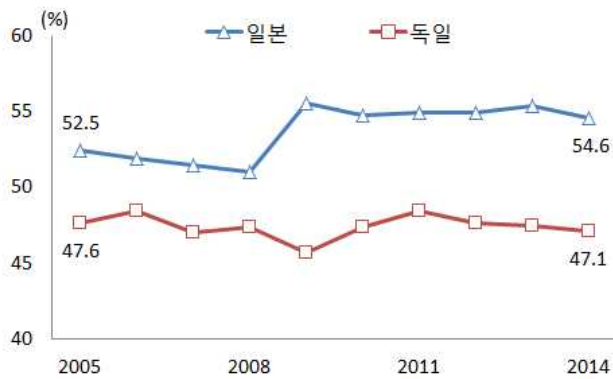
* 중간재 수출 비중 (% , 2014) : (日) 54.6 (獨) 47.1

● (獨) 독일은 對선진국 수출 비중이 69.5%로 일본에 비해 20%p 더 높고 소비재의 수출 비중도 총수출의 4분의 1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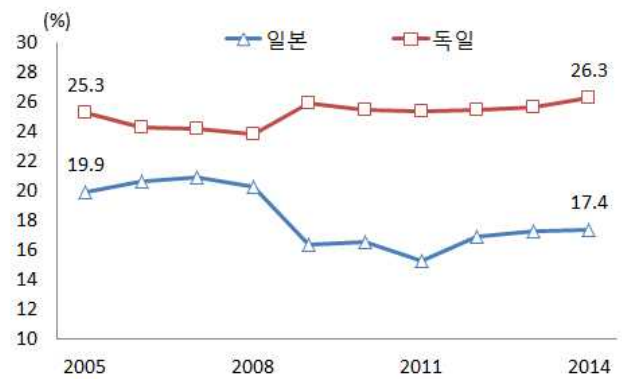
* 對선진국 수출 비중 (% , 2014) : (日) 49.2 (獨) 69.5

* 소비재 수출 비중 (% , 2014) : (日) 17.4 (獨) 26.3

일본·독일의 중간재 수출 비중



일본·독일의 소비재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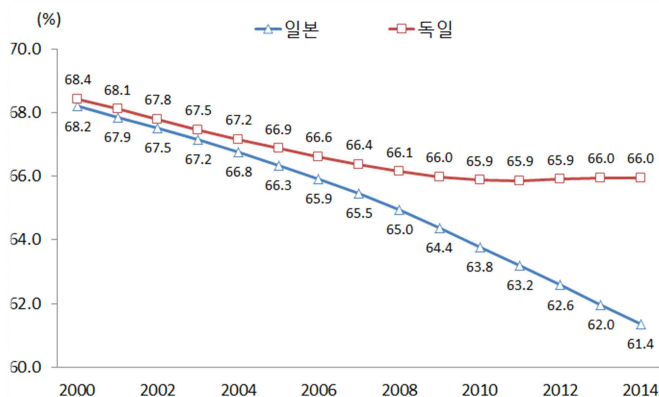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⑤ 日 폐쇄적인 이민정책 vs 獨 난민·이민자 적극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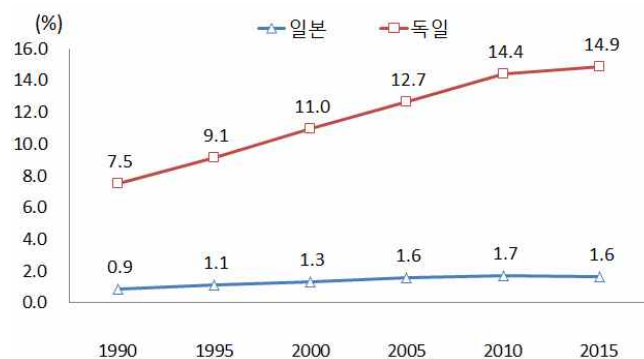
- 일본과 독일은 출산율 하락에 따라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日) 일본은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단순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보여 옴
 - * 최근 아베노믹스 개혁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
- (獨) 독일도 출산율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했으나, 난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처한 결과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수가 증가세로 전환
-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중(% , 1990년→2015년) : (독일) 7.5 → 14.9, (일본) 0.9 → 1.6

일본과 독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중



자료 :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15)

⑥ 日 더딘 노동개혁 VS 獨 적극적인 노동개혁 추진

- (日) 노동 구조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종신고용제도, 연공급 임금체계, 기업의 해고기피 성향’ 등의 잘못된 노동 관행이 지속됨(단, 일본은 2012년말 아베 정권 출범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 중임)
- (獨) 반면, 독일은 메르켈이 집권한 2006년부터 고용보호 완화와 단기계약근로 활성화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어젠다 2010’의 노동개혁을 추진함

[참고] 독일 및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안 비교	
독일 노동시장 개혁안 (Agenda 2010, 2006~)	일본 노동시장 개혁 (아베노믹스, 2013~)
1. 해고 요건 완화 2. 임시직 계약직 고용 촉진 - 임시직 규제 완화 - 신규 창업 기업 대상, 단기 계약근로자 채용 촉진 3. 실업 급여 혜택 축소 및 요건 강화 - 실업 급여 지급기간 축소 * 32개월 → 12개월 4. 고용 알선 제도 효율화 - 연방고용서비스청을 민간운영체제로 개편 - 실업자/훈련생 고용기업에 세제 및 융자 혜택	1. 정리해고 요건 완화 2. 파견 기한 제한 완화 - 파견법 개정, 업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파견 기간 제한 사실상 폐지 3. 여성 취업 장려 - 보육시설 확충 - 일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 4. 외국인 취업 장려 - 거주 기한 제한이 없는 외국인 거주 상태 신설 5. 노동 이동 지원 - 고용중개사업 규제 재구축

03. 한국의 수출에 주는 시사점

- 독일과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수출규모 3, 4위의 무역 강국인 동시에 강력한 제조업 기반 수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6위인 한국의 벤치마크로 적합
 - * 2015년 수출규모 및 순위(억 달러) : (독일)13,289, 3위, (일본) 6,251, 4위, (한국) 5,269, 6위
- 2000년부터 독일과 일본 간 수출규모 증가 속도의 격차 발생.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수출규모 증가세는 크게 둔화
 - * 일본 수출증가율(% , 달러기준) : 6.9('11) → -3.0('12) → -10.5('13) → -4.4('14) → -9.4('15)
- 한국 수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두 자리수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세계 교역 부진에 따라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수출증가세에 머무르고 있음
 - * 수출증감률(%) : 19.0('11) → -1.3('12) → 2.1('13) → 2.3('14) → -8.0('15) → -15.7('16.1~2)
- 최근 우리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해외경기 악화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지만 해외생산 확대, 일부 품목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
 - * 업종별 협단체 설문조사 결과('15.5월) : 최근 수출 부진은 대외 경기적 요인(61.4%)이 크지만 구조적 요인(대내 24%, 대외 12%)도 상당부분 기여(36%)
- 그러나 우리 수출은 경쟁국에 비해 선전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년 이후 상승세
 -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3.03('11) → 2.96('12) → 2.95('13) → 3.01('14) → 3.11('15^e)
- 우리 수출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 일본과 같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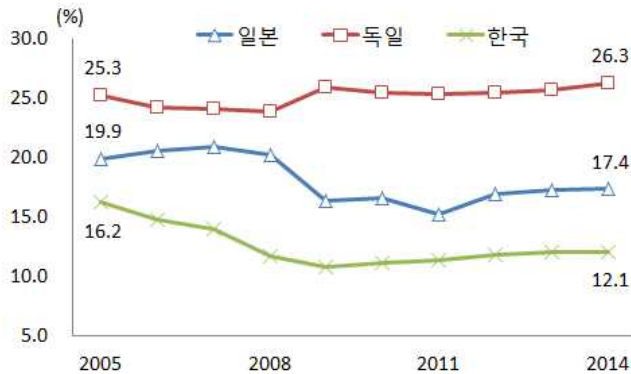
① 생산기지 해외 이전

-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수출둔화의 대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12대 업종의 해외생산 비중은 26.6%(총매출액 대비 해외매출 비중, '15.5월 업종별 협단체 설문조사 결과)이며 가전(77.6%, 휴대폰·정보기기 포함), 디스플레이(57.3%), 자동차(40.2%)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음
 - * 고임금,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국내 구조적 요인 → 생산기지 해외이전 → 해외생산기지의 (구매 등) 현지화 확대 → 對한국 수입 둔화의 악순환 우려
-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며, 주력 수출품목의 해외생산 확대가 국내 부품·소재 수출 확대에 보완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부품·소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② 수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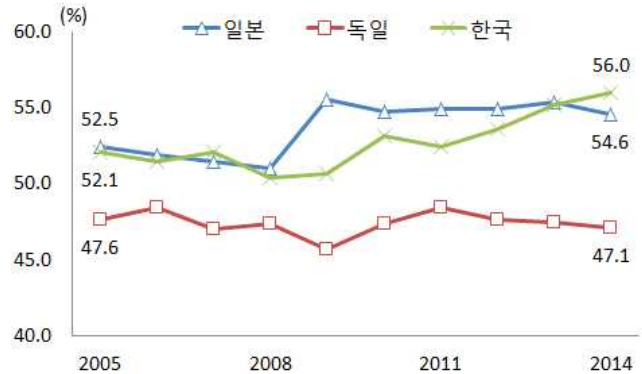
- 對선진국·소비재 수출 비중이 낮아 한국은 독일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한국의 소비재 수출 비중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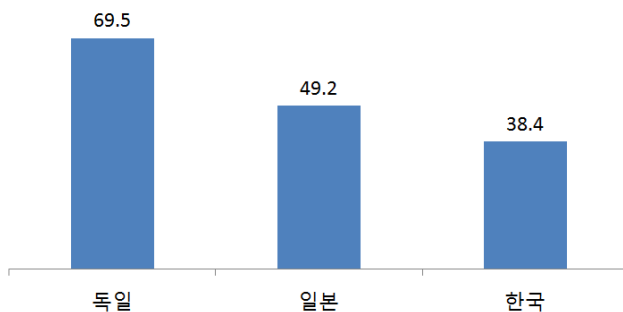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



자료 :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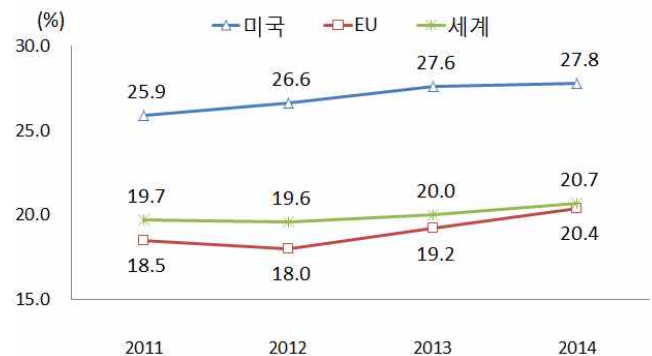
- 최근 신흥국의 경기부진, 선진국 경기 회복세의 기조에 따라 선진국 대상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선진국 수출 비중(2014, %)



자료 : UN Comtrade

세계 및 주요 선진국의 소비재 수입 비중



자료 : UN Comtrade

- 독일과 같이 소재·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고급 소비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③ 시장 개방

-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기준 14건, 총 51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여 FTA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외국인투자 유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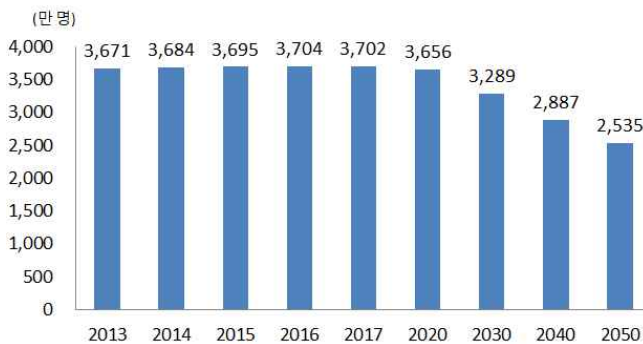
* GDP 대비 FDI 잔액 비중 비교 (% , 2014) : (日) 3.7, (獨) 19.3, (韓) 12.8

- 최근 세계 통상환경은 TPP,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확대로 글로벌 무역규범의 선진화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

④ 이민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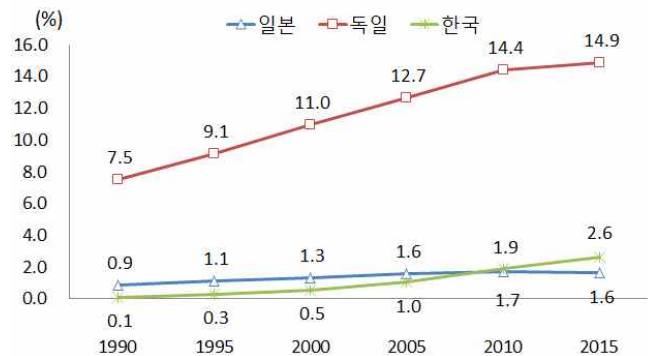
- 우리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은 2.6%(2015년)에 그침

한국 생산가능인구 추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중



자료 : UN,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 (2015)

-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⑤ 노동시장 개혁

- 2016년 초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이 발표·시행되었으나 근로시간 단축, 파견확대, 실업급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원활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됨
- 더불어 강한 노동시장 규제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제약하고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참고문헌>

강유덕 (2015),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과 경제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계환 (2013),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이지평 (2014), “엔저만으로 극복 어려운 일본 수출부진의 교훈”,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이지홍 (2013), “엔고 시대의 일본기업이 주는 엔저원고 시대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
 Fraunhofer IS (2013), “Globale Produktion von einer starken Heimatbasis aus”
 WEF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독일·일본·한국의 수출 성과의 구조적 요인 비교 및 시사점>

		독일 (세계 수출 3위)	일본 (세계 수출 4위)	한국 (세계 수출 6위)
수출 성과	수출규모 (’94년 대비 ’15년)	3.11배	1.57배	5.49배
	수출물량	1994년 이후 증가세	2010년 이후 감소세	1994년 이후 증가세
	세계시장 점유율	7.6(’12) → 7.9(’14) → 7.9(’15)	4.3(’12) → 3.6(’14) → 3.7(’15)	3.0(’12) → 3.0(’14) → 3.1(’15)
1. 환율	통화가치와 수출경쟁력	· 안정적인 유로화 가치 · 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역내 수출 경쟁력 제고	· 2006~2012년 동안 엔고 → 수출제품 가격경쟁력 저하 · 2013년부터 엔화약세	· 2014.7월 이후 원화 가치 하락 * 1,070(’14.7) → 1,236.7(’16.2) · 최근 불확실성 증가
	⇒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통화가치의 안정적 유지			
2. 해외 생산 확대	해외생산 비중(%)	· 2006년 15% → 2012년 8% · 2006년 이후 매년 조사기 업의 2~3%는 본국 회귀	· 2000년 11.8% → 2013년 22.9%로 약 2배 증가	· 12대 업종(’15) : 26.6% ·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해외생산 비중 높음
	⇒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부품·소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3. 이민자 정책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중 (1990→2015)	7.5% → 14.9%	0.9% → 1.6%	0.1% → 2.6%
	생산가능인구	2013년부터 증가세	감소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
	⇒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4. 시장 개방	FTA 발효현황	34건, 56개국	14건, 16개국	14건, 51개국
	명목 법인세율 (2006 → 2015)	38.3% → 29.7%	40.7% → 33.1%	27.5% → 24.2%
	GDP 대비 FDI 잔액 비중(2014)	19.3%	3.7%	12.8%
	⇒ TPP,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			
5. 노동 시장 개혁	노동시장 개혁정책	「Agenda 2010」(2006년~) * 해고 요건 완화 * 임시직 계약직 고용 촉진 * 실업 급여 혜택 축소 * 고용 알선 제도 효율화	「아베노믹스」 노동개혁(2013년~) * 정리해고 요건 완화 * 파견 기한 제한 완화 * 여성·외국인 취업 장려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시행(2016년 초) *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명료화 * 임금피크제, 직무능력·성과 기준 임금체계 개편 장려
	⇒ 원활한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파견확대, 실업급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됨			
6. 수출 구조 차이	對선진국 수출비중(’14)	69.5%	49.2%	38.4%
	소비재 수출비중(’14)	26.3%	17.4%	12.1%
	중간재 수출비중(’14)	47.1%	54.6%	56.0%
	⇒ 독일과 같이 부품·소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고급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여 對선진국 수출을 확대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6000-5185, bkmun@kita.net)
 김건우 연구원 (6000-5106, astronaut@kita.net)